

탈무드 임마누엘에 나타난 창조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reativity of The Talmud of Jmmanuel

오 정 석, 오 정 현, 이 재 윤
국민통합연구소

Oh jeong-seok, Oh jeong-hyun, Lee jae yoon

요약

탈무드 임마누엘에서는 '창조'를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으며 '창조'의 조각들인 '영혼'은 인간에 내재된 채 삶을 살아간 후 다시 '창조'로 돌아가 완성을 향해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탈무드 임마누엘에 나타난 창조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I. 서론

우리 인간에게는 창조적 욕구가 기본적으로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창조성은 인류의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탈무드 임마누엘이란 1960년대에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고문서로 창조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로 인간의 창조성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창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탈무드 임마누엘에서 말하는 '창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탈무드 임마누엘의 유래

1963년 스위스 태생의 에두아르트 엘버트 마이어와 그리스 정교의 은퇴 사제인 그의 친구 이사 라시드가 예루살렘의 고대 도시의 옛 무덤에서 대략 길이 60cm에 폭 25cm 정도의 꾸러미를 발견하였고 그 안에 <임마누엘의 탈무드>라는 이름이 붙은 아랍어로 쓰인 4개의 분리된 두루마리가 있었다. 이사 라시드는 이 두루마리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36장까지 완성하여 <탈무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전해졌다.

2. 탈무드 임마누엘에 나타난 창조의 특징과 속성

탈무드 임마누엘에 나타난 '창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다.

1) 신神과는 별개의 고유한 하나의 존재

제 16장 57절: 그렇지만 神은 창조創造가 아닙니다. 창조는 무한하며 형태가 없습니다.

제 21장 27절: 한 사람 안의 영혼이 한 개체이듯이 창조도 자신 안에서 하나의 개체며, 그 밖에는 어떤 다른 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무성無性, 무한성, 영원불변, 전능, 무형태의 살아있는 영체靈體

제 3장 5절: 그리고 性의 구별조차 없는 창조創造야말로 삶과 죽음, 빛과 어둠, 존재와 비존재 등 모든 불가사의들 중의 불가사의임을 가르쳤다.

제 16장 57절: 그렇지만 神은 창조創造가 아닙니다. 창조는 무한하며 형태가 없습니다.

제 34장 3절: 창조는 靈이며 따라서 살아 있으므로 창조도 영원히 자신을 완성해야만 합니다.

3) 창조는 의지意志에서 시작

제 14장 25절: 창조創造의 意志보다 더 위대한 의지가 결코 없을 것이니, 그것은 이들 法則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제 21장 17절: 무엇이든지 사람이 이루기를 원하면 항상 그렇게 하려는 意志를 먼저 창조創造해야 합니다. 그것이 自然法則이기 때문입니다.

4) 창조의 법칙은 곧 자연의 법칙

제 7장 3절: 창조로부터 연유한 자연법칙의 논리에 따라서 판단하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진리와 옳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10장 7절: 자연법칙들이 곧 창조의 법칙들이며, 사람 안의 창조적 영혼의 능력이 생명(삶)을 구체화하는 것임을 밖에 나가서 설교하고 말하십시오.

5) 지구 생태계의 관리

제 6장 43절: 새들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창조에 의해 먹여지고 입혀집니다.

제 6장 48절: 창조는 오늘 서 있다가 내일 난로에 던져지는 들꿩에게도 자양분을 주고 입힙니다.

3. 창조의 목적

탈무드 임마누엘에서 창조는 완성을 향해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인간의 영혼은 창조로부터 분화된 것, 즉, 창조와 인간의 영혼은 하나이며 인간은 지혜와 영성을 성장시킴으로 창조와 함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이 존재의 목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

1) 인간의 영혼은 영원불멸한 창조의 일부분

제 16장 44절: 당신의 영혼의 힘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힘은 창조創造 자체의 일부분이며, 그래서 힘의 限界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 18장 42절: 한 사람의 영혼靈魂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진 창조創造의 一部分입니다. 영혼은 지식知識이 있게 만들어져서 完成되어야 합니다.

제 18장 44절: 창조는 처음도 끝도 없으며,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21장 26절: 그럼으로써 법칙에 의해 정해진 대로 각 사람의 영혼이 창조와 하나로 되는 것이며, 그로써 그 안에서 창조가 성장하고 발전하여 결국 스스로를 완성시킵니다.

제 34장 39절: 사람 안에 있는 靈魂은 창조創造의 一部分이므로 창조와 더불어 하나며, 필연적으로 둘이 아닙니다.

2) 완성을 위해 계속 성장하는 존재

제 18장 43절: 그럼으로써 영혼이 창조와 하나 되기 위하여 계속 나아가는 것이니, 이는 창조 또한 변치 않는 成長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제 34장 3절: 창조는 靈이며 따라서 살아 있으므로 창조도 영원히 자신을 완성해야만 합니다.

3) 인간의 영적 성장과 함께 성장

제 21장 21절: 여러분은 靈의으로 完全하게 되는 임무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제 21장 26절: 그럼으로써 법칙에 의해 정해진 대로 각 사람의 영혼이 창조와 하나로 되는 것이며, 그로써 그 안에서 창조가 성장하고 발전하여 결국 스스로를 완성시킵니다.

제 34장 4절: 그러나 창조는 자신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혼靈魂 형태들을 만들어 사람들 속에 거하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줌으로써 자신의 창조물들을 통하여 스스로를 완성시킬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배움을 통하여 완성을 향해 진보합니다.

제 34장 16절: 이렇게 창조는 새로운 영혼을 낳아 왔고 그것이 인간의 몸 안에서 독자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완성된 영혼은 창조와 하나 되기 위해 그에게 돌아가며, 이런 방식으로 창조는 자신 안에서 자신을 완성시킵니다. 그 안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4. 창조 관점에서의 인간 삶의 목적과 자세

창조의 관점에서 인간은 영혼의 능력을 통해 진리 안에서 지혜를 얻어 영적으로 완전하게 되고 인류는 하나의 우주적 통일체가 되어 창조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제5장 47절: 여러분은 인간으로 肉化하는 많은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靈魂과 意識을 훈련시켜서 이들이 完成되도록 진보進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창조創造와 하나로 될 것입니다.

제 23장 35절: 임마누엘이 말했다. 창조創造의 법칙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이것입니다. '知識의 智慧를 성취하라. 그럼으로써 슬기롭게 창조의 법칙을 따를 수 있다.'

제 32장 7절: 사람이 창조創造의 법칙에 따라서 산다면 眞理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제 32장 19절: 인류는 하나의 우주적 통일체가 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인류는 창조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 36장 31절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변화의 끊임없는 흐름의 법칙'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또한 이를 의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건들 및 진보에 관한 웅대한 계획에 스스로 순응하도록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법칙들 즉, 이 법칙들에 의하여 이미 규정된 것처럼 존재의 순환들(輪回)이 완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Ⅲ. 결론

탈무드 임마누엘에서 창조는 영체靈體이며 인간의 영혼 또한 창조의 일부분으로 모든 인류는 창조에서 분화된 하나의 공동체이며 이러한 영혼은 영원한 존재의 순환의 과정에서 진리와 지혜, 지식을 통해 영성의 발전으로 창조의 완성을 향한 성장에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지의 창조이며 의지를 굳건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1] 탈무드 임마누엘